

“새 희망을 갖고 도약하는 양돈산업이 되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돈농가 경쟁력을 제고하자)



이상길 축산정책국장
농림부

양돈산업은 UR 타결 및 돼지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같은 대외 개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 1995년 1조 4천억원이었던 생산액이 2006년 현재는 3조 6천억원으로 전체 농림 품목 중 쌀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전체 생산액 11조 7천억원중 31%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는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사료값 인상 등 축산분야에 난제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였으며, 양돈농가 또한, 사료값 인상, 사육두수 및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유통업계, 학계, 정부 등 각 분야에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은 지혜롭게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적극 추진

우선,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농·축협 등 경종·축산 조직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추진 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2007년도 13개소 148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20개소 32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액비살포 의무

면적 및 액비저장조 보관능력 완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 인식 전환을 위해 퇴액비 시범포 운영, 장터개설, 연찬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정책의 효과로 2005년 275만톤에서 2006년 261만톤, 2007년 202만톤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단계적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11년까지 시·도별 해양배출 감축 실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추진

2004년 축산물 브랜드 도입이후 브랜드 경영체의 사육비중 및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우수 브랜드 진출 확산 등으로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차별화가 미흡하고 부실한 영세 브랜드 난립 등 브랜드경영체의 시장교섭력은 아직 취약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명품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 등 2단계 발전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정책지원 브랜드 경영체 선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10여개 축산사업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브랜드 경영체의 재무·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조성, 브랜드 직영 판매시설 확대를 통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돈육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강화 구축

정부에서는 구제역 등 국내 유입 위험시기별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가축방역종합대책에 따라 질병별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년 3~5월에 수입근초 소독·정밀검사,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축산농가 일제소독 지원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돼지열병은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종돈장 위생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과학적인 수입위험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휴대품 검색기능 강화를 위해 검역탐지견 운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별대책 기간중에는 현장 검역관 및 탐지견 기동배치, 위험국가 운항노선 승객에 대한 집중 검색을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공동방제단(13천명)과 예찰요원(2.6천명)을 동원하여 예찰·소독의 정례화와 지자체·농가의 방역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밀집사육 등 열악한 사양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친환경축산농장지정 및 유기·무

항생제 직불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농가별 맞춤형 돼지소모성질환 방역을 위해 주치의 제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료가격안정추진

최근 옥수수 바이오 에탄올 수요급증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국내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당분간은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옥수수 등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을 2007년도 517억원에서 2008년도 829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및 세율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사료원료 수급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동남아·중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매니옥칩, 옥수수 주정박, 대두피 등 저렴한 대체원료 이용 확대로 사료 원료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해외 사료곡물저장 시설 등 민간투자 유도 및 저장시설을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 1,500개소 추진 및 HACCP 적용 확대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가축의 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10년간 양돈분야에 1,5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등이며, 사업지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내에 (사)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를 지정받아야 한다.

돈육산업발전 T/F팀 구성 운영

2007년 12월 정부에서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소속의 기획, 경영, 방역·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으로 돈육산업 발전 T/F팀을 구성, 각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발굴하고,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돈육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끝으로, 2008년 한해도 양돈 농가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양돈 관련 유관기관에도 무궁한 발전과 진일보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마친다. **양돈**